

오피니언

다산포럼

남영신



월드컵 축구 경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쭉이 있다. 지난 2002년의 감각을 생생하게 경험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시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극하듯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서민 경제가 몹시 어려운데 사회가 너무 월드컵에 '몰인'하다는 비난도 있는 것 같다. 나도 이런 일부 시각에 동의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차분히 이런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

'월드컵 광기'와 우리 안의 가치 찾기

경기엔 관심이 없고 월드컵 경기만 좋아한다는 비아냥을 들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월드컵 대회에 열광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설령 방송과 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한 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온통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월드컵 '광기'를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인은 무언가 자신을 온통 내밀고 열광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있다. 그것이 대의명분이 있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한 일에 몰입하여 미치도록 기뻐하고 싶다. 정치, 사회, 경제 여건 등이 안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열정은 자극하듯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지도자는 이런 열정을 사회 발전으로 승화시킬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 그런 바람을 월드컵이라는 경기에 열광하면서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한국인은 최근의 몇몇 성공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의 내면에서 긍정적 가치

우리는 공동의 목표 아래서 모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이 스포츠라는 것을 지난 2002년에 전율할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느꼈다. 우리 역사에서 남녀노소와 지역적 계층적 구별이 없이 온통 하나가 되었던 경우는 2002년의 경험이 유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복원해 주었고, 각계를 넘나들며 대화의 소재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한다. 불행히도 요즘의 '월드컵 광기'는 이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우리의 열정을 녹일 수 있는 계기가 더 필요하다. 2006년의 '월드컵 광기'는 우리에게 국민의 이런 열정을 한데 모아 녹일 수 있는 새로운 용광로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월드컵 광기'를 단순히 '외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광기'라고 비난하고 지나친다면 이 현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자신에 대한 비하의 목소리만 남자하게 된다. 우리는 국민의 열정이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하여 무엇을 찾아 어떻게 분출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내면의 가치를 승화시키는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야 한다. 우리의 '월드컵 광기'가 주는 메시지에 우리 자신이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장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鬪魂의 한국축구' 국민에게 용기 줬다

확실히 한국 축구엔 뭔가 있다. 우리는 그 무엇이 '투혼(鬪魂)'이라고 믿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의 오른쪽 허리춤에는 바로 '투혼'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월드컵 조별예선 첫경기에서도 토고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국팀은 두번째 상대 프랑스에게 1대 0으로 뒤지고있는 상황에서도 끝내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져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냈다. 세계가 절대 열세를 점치던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우리는 승리वाद 같은 무승부를 이끌어 냈으며서 한국 축구의, 한국인의 투혼을 세계에 깊이 각인시켰다.

우리 축구의 수준은 확실히 프랑스에 비해 보잘것 없었다. 볼을 킁핑하는 능력도, 드리블의 속도와 패스의 정확성도 모두 뒤졌다. 시합 벽두에 환골을 내준 대표팀은 지루한 백패스와 허둥거리는 태클로 일관했다. 그러나 대표팀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찬스를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뽑아냈다. 그것으로 프랑스는

무너졌다. 대 스위스전에서도 물론 우리 태극전사들은 승리를 위해 모든걸 쏟아부을 것이다. 경위의 수를 따질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이겨서 G조 예선 1위로 16강 대열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미 승패에 관계없이 우리의 짧은 선수들은 국민에게 많은 메시지를 줬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투혼, 최선을 다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등이다.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제, 민생 살피기보다는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상황 등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젊은 선수들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다.

선수들은 남은 경기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경기 때나도 지금까지처럼 깨끗한 모습을 잃지 말기를 부탁한다. 투혼의 대표팀은 우리국민에게 씌워진 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갈 용기를 주었다.

國富유출 사건으로 판명난 外換銀 매각

지난 2003년 톤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어제 '외환은행 경영진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지나치게 낮게 6.16%로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 매각이 부적절한 정책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으로 매각돼 명백하게 국부가 유출된 사건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인 셈이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은 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부풀리도록 회계법인에 압력을 넣었으며 감독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담당 공무원들 역시 헐값 매각에 일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매각당시 톤스타의 불법자문을 맡았던 모 법률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이현재 전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의 금융거래배경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구심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감사에서 톤스타의 조직적 개입이나 이면계약 존재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변양호 전 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전직 구속하고 이현재 전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검찰 수사가 급피치를 울리고 있다. BIS 비율 산정과정에서 고위층의 위약 여부와 고위 공직자들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는지 성역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기대한다.

無等鼓

19일 새벽 프랑스전, '전반 9분'만에 티에리 앙리의 골이 한국의 네투를 가볍게 가르자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지난 2001년 5월 30일 대구에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프랑스와 개막전서 한국의 0-5 참패.

'아! '오대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삼대영'으로는 깨지겠구나'하는 참담함이 뇌리를 스쳤다. 전반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은 현실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날 대구에서, 히딩크 감독은 4-5-1 카드로 살기현만 최전방에 투입하고 포백으로 수비에 치중하는 작전을 폈으나 세계최강을 만난 태극전사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몸이 굳어 워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프랑스 선수들은 질풍처럼 한국을 몰아붙였다. 역시 '전반 9분' 말리의 골부터 소나기 솟은 한국문전을 유린했고 세계 제1의 화력은 5대0으로 맹폭했다. "그날 내가 한것은 전반전에 페널티 킥 한번 막은 것 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줄 것은 다 내주었다. 각도를 잡으려는

순간 슈팅은 날아왔고 조금만 빗물이 있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그곳을 찔러왔다. 나는 거의 얼이 빠진 듯 어떻게 경기를 마쳤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당시 흔히 난 골피터 이문재의 회고다. 한국은 전반 22분 유상철의 중거리 슈트가 그나마 변변했고 후반 황선홍과 설기현의 슈트가 전부였다.

프랑스와 3번째 만난 19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축명이건 중앙이건 공격은 아무런 의미없이 단발에 끝났고 패스는 2번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스피드·파워에서 모두 밀렸다. 전반에는 단 1개의 슈트 없었다. 80분간 무기력했고 부끄러울 정도였다.

이날 무승부는 험없이 뒀 박지성과 선방한 이문재가 만들었다. 여기에 힘 빠진 아트스커, '늪은 수탉'들이 기여를 했다. 이제 스위스전이 남았는데 이대라면 진다. 두툼한 배짱과 그라운드에서 죽겠다는 감칠투혼만 방법이 없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ihh@

강철 투혼



기고

유영식



교원 성과급 차등비를 지급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 사이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교원들의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10%로 했으나 올해부터 50%이상 차등화해 이달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 때문이다. 종전에 교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성과급 전체의 90%는 경력과 호봉에 따라 교사들에게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했다. 따라서 상위 30%와 하위 30%의 성과급 차이는 교사 경력 15년인 2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겨우 6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나 50%로 확대할 경우, 상위 등급과 하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 성과급의 과다가 결정되면 자존심에도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은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수당 형식의 후생복지비만 늘어날까 될 터이다. 이 시대 조류는 무한경쟁을 요구받고 있고 경쟁에 뒤지면 나오되기 마련이다.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 사회권 모두 마찬가지인데 유독 교육만 경쟁의 뒤안길에서 안주하겠다는 사고방식은 퇴역적이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은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되어야 하며, 평가자들도 객관적으로

교원 평가와 성과급

등급과의 차이는 한 학기에 32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하반기까지 합칠 경우 더욱 벌어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몇 년간 차등 폭을 줄여왔으나 교원들도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라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외를 둘 명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와 '전국 교육자 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이제 와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한 수 더 떠 성과급을 수당으로 바꿔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교원들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아예 폐지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신뢰할고 수긍할 수 있는 결과여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평가가 오히려 교직 분위기를 저해한다거나, 캐리커리 서로 좋은 평가를 한다거나, 권위주의를 내세워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교사는 전문직이므로 스스로 평가를 받아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성과급 지급이 교원의 긍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국회의원이 우스갯소리로 한 '교실은 난장판, 학생은 놀자판, 교사는 죽을판, 교무실은 싸움판, 교장은 눈치판, 학부모는 망할판, 교육부는 개판'이란 황당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재)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이시정>

운전중 TV시청 위험천만... 강력한 제재 필요

요즘 도로상에서 적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TV를 시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뮤직 비디오 동영상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 상용화로 인해 자동차 안에서 방송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운전 중 TV 시청은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 중 TV를 시청하는 것은 휴대전화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만큼 이를 운전자에게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DMB나 네비게이션이 팔리는 것 만큼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규정·광주시 북구 매곡동



원숭이와 토끼

아이들은 동물을 좋아한다. 동물을 보면 눈빛을 반짝이고, 낯선 동물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기억 때문일까. 자녀를 데리고 온 어른들도, 손자·손녀를 데리고 온 노인들도 동물원에서는 나이를 잊고 어린이의 마음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다가 가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을 보면 탄성을 지른다.

이 광경도 그렇다. 원숭이가 토끼 등을 타고 다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숭이들은 워낙 장난꾸러기인데 다 네발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탓에 만만한 동물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편이다. 그런데 이 사진 속 다람쥐원숭이는 아주 크기가 작은 소형원숭이라 넓은 사육장 안에서 키우다 보니 허전한 느낌이 들어 밑에다 토끼를 넣어 줬다. 서로 영역충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날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매달린 원숭이도 자연스러워 보였고,



태우는 토끼도 그리 젊은 표정이 아니었다. 다섯 마리의 원숭이 중 유독 한 마리만, 토끼도 3마리 중에 꼭 한 마리만 그랬다.

이 동물들 사이에 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모양인데, 서로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재밌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보험회사의 획일적 대물 보상금 책정 황당할뿐

95년식 1천500cc급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얼마전 국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길이 막혀 서행하는데 뒤에서 달려온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수리비 견적이 280만원이나 나왔다. 당연히 가해차량 쪽에서 차를 교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병실로 전화를 걸어와 차 값으로 60만원을 쳐 주겠다고 했다. 중고차시장에서 내 차 값이 그 정도밖에 안나오니 그 정도 금액을 받으라는 것이다. 아니면 본인 부담으로 나머지 수리

비를 총당하거나 폐차를 할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다. 10년전 차를 살 때 현금자산을 모두 쏟아 붓고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고, 소모품 교체 시기도 사용 지침에 나오는 기간에 맞춰 사용했다. 소모품을 교체하려 갔을 때 정비사들조차 더 사용하라고 권했을 정도로, 내게는 소중한 차다. 없는 살림에 막한 유지비를 감당하며 사용해왔던 탓에 너무 황당했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물 보상금을 책정하는 약관은 교체해야 하지 않는가. ▲유지상·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subscription rates, contact info.